

SERMON JUNE 12 2016 LINDARA

1Kings(열왕기상) 21:1-10, 15-21a, Luke(누가복음) 7:36-8:3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면하는 투쟁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보안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 우리 나라, 우리 도시 그리고 공동체의 이미지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음식과 물에 크게 뒤 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고, 저는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안전함을 못 느껴 올 수도 있습니다. 저의 남편 클라이브는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예배에서 설교를 마친 후 92세나이 드신 분께서 클라이브를 만나기를 원해 하셨습니다. 클라이브는 그녀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6세에 강간을 당했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만 했다고 느꼈고 그렇게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식들도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코 세례식을 할 수 없었고 몇 년 동안

항상 성찬을 받을 때도 불편 하게 느끼셨습니다. 곧 그녀는 단순하게 장로가 있는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사망했고 클라이브는 그녀의 장례식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같다고 가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 각자 삶의 경험을 가진 각각의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저는 여기에서 아합, 이세벨 그리고 나봇과 그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수한 남성이 그의 가족 대대로 내려 오는 약간의 땅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 입니다. 그 연관성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아마 우리 삶에서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어떤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인 가를 상상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원주민들을 위한 이야기는 다르고 열왕기상의 이 내용은 공명을 남깁니다. 심통 사나운 버릇없는 아이같이 행동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그의 아내는 교활하고 강력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삶은 소모성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옳음과 공의를 말하는 역할을 하는 예언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들에게 분명히 재앙이 있을 것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들 각자는 정말 나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악과 형벌, 믿음으로부터 타락에 관한 것,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너무 많은 투쟁과, 실수와, 피 흘림과 고통에 대한 것이 있는듯합니다. 거기에는 구약과 현재 우리가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이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재 구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이해를 제공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비로우시고 정당한 노여움으로 가득 찬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을 가지 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존경의 관계를 통해서, 전통과 법의 재 구성의 용기, 인생의 가치와 불공정하게 심판 받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 소외된 사람들, 사랑 받지 못한 사람들, 추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인간의 관계를 보여 주십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시기 위해 앉으실 때 그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금기 상황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 여인은 사실 그곳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시몬은 식사 전에 씻으실 물을 제공하는 관습적인 호의를 예수님께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울음을 터트리지 말았어야 했고 그의 발을 만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향수를 붓고는 향기로 온 방을 가득 채우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죄인으로 판단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녀를 받아 드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것 보다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것에 관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흥미롭고 중요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그 문장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먼저 우리는 이 상황을 그려봅시다. 그들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낮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의 누워서, 각 사람들은 팔꿈치로 기대며, 그들의 발은 그들 뒤로 쪽 뻗어 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뒤에,

그의 발에 있는 여인을 상상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향했을 때 그는 그의 등을 시몬에게 보이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그의 구성원 안에 포함 시킴으로 그 여인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단지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구성원 안에 포함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이야기 한 것처럼 그녀도 소속 됩니다: 7 명의 마귀가 빠져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소외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부를 통해서 사회 신분과 명성을 가진 다른 여인과 같이 이야기가 되어 집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위의 새로운 공동체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회와 소속감을 위한 전체의 새로운 기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안전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각자가 누구인지 존중 받습니다, 단지 그들이 저녁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가는 그들의 몇 명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동료들이 통념을 깨어서 모범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예수님과의 삶이 보장을 제공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친구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돌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떠한 숨겨진 고통을 가지고서도 그들 스스로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들을, 그들의 때에, 그들의 장소에서, 마음 편하게 어떠한 추정 없이 편안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한 도전을 찾기 위해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어떻게 돌봄의 사회로 통합 될 수 있는지 다시 상상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와 주는 분들, 그들의 시간을 주시는 분들, 안전을 제공하시는 분들, 지지하시며 들어주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는 분들 또한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것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린다라 마켓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느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린다라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 받고 알려지는 사람은 그들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